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정주애,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주일예배

오전 11시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교회소식 말은이

찬양* 찬양*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자 다같이

부르신 곳에서

주 은혜 임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기도인도 인도자

봉헌*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찬 633) 다같이

말씀교독 마 28:16-20 다같이

말씀선포 “왜 다시 갈릴리인가” 김원재목사

찬양과결단*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새벽기도회를 영상(Zoom)으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방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생명의삶 공부를 Zoom으로 재개했습니다.
4. 목자목녀모임이 4/22(수) 오후 8시에 Zoom으로 합니다.
5. 5월 첫째 주일(5/3)은 성찬주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빵과 잔을 준비하셔서 영상으로 성찬식을 진행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Covid-19 확산으로 인해 주일예배를 영상예배(youtube)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은 잊지 말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거나, 송금하는 두 가지 방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페이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재 예배당 건축이 주지사의 명령에 의해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건축헌금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9.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토 6:30PM, 주일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통행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말이면 끝날 줄 알았던 자택 대피 명령이 쿠오모 주지사의 발표에 따르면 5월 15일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주지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자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주의 소식이지만, 버지니아 주에서는 주지사 관저에 사람들이 몰려와 자택 대피 상황을 풀어달라고 시위를 합니다. 또한 미시간 주에서는 사람들이 총기를 들고와 시위를 하며 자택 대기 명령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경제적 상실감이 더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두려운 사건으로 우리 시대에 기록될 것입니다. 전쟁만큼, 테러만큼 희생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경제적 곤란함을 두려워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느끼는 두려움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며 갖게 되는 두려움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행동과 마음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우선 순위도 그것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분이 우리를 지배하시며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갈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건축헌금참여 111명 건축헌금누계 \$702,242